

# 성폭력 부정주의의 정동적 힘과 대안적 정동 생성의 ‘쓰기’

권명아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목차

- 1 ‘민주화 세대’와 성폭력과 일상이 된 파괴적 변용
- 2 성폭력 부정주의 정동에 대항하는 대안 정동 생성의 쓰기
- 3 이중노동시장 구조와 공적 조직의 정파적 점유  
: 여성 노동자의 증충적 외부자성과 성폭력 무책임주의의 구조적 원천
- 4 ‘민주화 이후’의 사상적 대안으로서 반차별 정치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80743)

이 연구는 『김지은입니다』를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부정주의가 어떻게 집단적으로 조직되는가를 공개적으로 증언한 정치적 텍스트로 해석하고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른바 ‘진보정치 집단’ 출신의 광역 단체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논의를 비판하고 이 사태를 역사적이고 이론적으로 다루기 위한 문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지은입니다』를 통해 민주화 세대의 지배적 정동과 정동 정치가 성폭력을 산출하는 조직 구조를 어떻게 구성하고 재생산하는지를 밝힌다. 둘째, 진보 집단 출신 정치인 중심의 조직 구도에서 노동 구조는 신분제에 가까운 노예화에 기반하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런 조직 구조는 이중 노동 시장 이론과 일치한다. 셋째, 광역 단체장 성폭력 사건은 ‘진보 정치’ 집단의 ‘노동’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다. 넷째, 진보 집단의 정파주의와 민주화 세대의 정동을 극단적인 진영 대립의 원인으로 살펴본다.

성폭력 부정주의 연구는 우리를 대안 정치 이념이자 주체로서 반차별 정치의 이념과 주체가 형성되는 생생한 대안 정치로 이끈다. 오래된 정동 정치를 무력화하는 대안 정동의 현상이 바로 성폭력 부정주의 연구의 현상이다.

국문핵심어: 김지은입니다, 성폭력 부정주의, 정파주의, 부인의 수사, 끈질김, 대안 정동, 반차별 정치

## 1 ‘민주화 세대’와 성폭력과 일상이 된 파괴적 변용

광역 단체에서 벌어진 일련의 성폭력 사태를 계기로 ‘민주화 세대’와 성폭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논란은 가해자와 피해자 편으로 극단적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며 지속하고 있다. 언론 매체나 소셜 미디어 등 담론 공간에서는 이를 ‘극단적인 진영 대립’ 문제로 다루고 있고 이런 현상이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등장한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라고도 비판한다. 한국 사회에 최근 들어 이런 식의 진영 대립이 팽배하게 된 것에 관해서는 SNS 담론 생산

의 문제나, 세대 간의 간극,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반지성주의적 독단 등 다양한 원인이 논의된 바 있다. 광역 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거대한 이슈로 소용돌이쳤고 매년 조직문화 개선, 386세대의 성 인지 감수성, 강경한 대응책 등이 해결해야 할 긴급한 사안으로 제시되었으나 막상 제대로 된 변화는 거의 없다. 이 연구는 이른바 ‘진보정치 집단’ 출신의 광역 단체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담론 공간의 논의를 비판하고 이 사태를 역사적이고 이론적인 분석 대상으로 다루기 위한 문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다음 네 가지의 연구 목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의 저작인 『김지은입니다』<sup>1</sup>에 대한 해석을 통해 민주화 세대의 지배적 정동과 정동 정치가 성폭력을 산출하는 조직 구조를 어떻게 구성하고 재생산하는지를 밝힌다. 민주화 세대가 청년기 운동권 문화에서 만들었던 정파주의와 조직보위는 이데올로기이자 특정한 정동 체계로 오늘날 이들 세대 집단의 지배적 정동 구조의 주요 부분을 이룬다. 이러한 정동 체계가 정당 조직과 광역 단체장 조직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국가기구의 ‘민주화’ 과정이기도 했으나, 국가 조직과 공공 영역이 정파적으로 재구성되는 무한 연쇄로 이어졌다. 이런 조직 구도에서 김지은과 같은 여성 비정규직은 정파의 ‘외부자’(포함인 배제)가 된다. 특히 이런 정파 조직이 지방정부로 이어지면서 광역 단체 조직은 ‘조직 보위’로 뭉친 내부, 포함인 배제 집단, 갈등하는 적대적 공존자인 기존 행정 집행 전문가(기존 공무원 집단)로 분열적으로 구성된다. 이런 조직 구도는 성폭력의 구조적 원천이자, 사상 유례가 없는 ‘국가조직 주도형 2차 가해’가 생산되는 구조적 원천이기도 하다. 또한 이런 분열적 구조로 인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책임을 기관과 집단 별로 서로에게 전가하는 무책임주의가 발생한다. 광역 단체장 성폭력 사건의 여러 사례에서 단체장에 대한 관리 감독 자체가 사각지대가 되는 점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두 번째로는 진보 집단 출신 정치인이 중심이 된 광역 단체의 조직 구도의 노동 착취 구조는 신자유주의 경제 구조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신분제에 가까운 노예화에 기반하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른바 ‘진보 집단 출신 정치인’이 광

1 김지은, 『김지은입니다: 안희정 성폭력 554일간의 기록』, 봄알람, 2020, 1-384쪽.

역 단체장인 광역 단체의 조직 구조는 고위 직급과 정규직, 남성으로 이뤄진 내부자 집단과 주로 청년과 여성에게 할당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자원봉사로 이뤄진 외부자 집단으로 나뉘어 있다. 이런 조직 구조는 이중 노동 시장 이론에서 논의하는 이중 구조의 특성을 고스란히 반복한다. 즉 이런 조직 구조는 지방정부와 정당 조직과 같은 공공 영역에서 이중 노동 시장 구조가 어떻게 특수한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문제를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련의 광역 단체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이 연구는 이 사건들이 특정 개인의 ‘성 인지 감수성’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라, ‘민주화’ 세대 정치 집단이 구축한 정치 조직 구조의 산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운동권의 정파주의와 공공기관을 잠식한 노동의 이중 구조화가 결합한 특수한 조직 구조의 폭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정규직 전환을 포함한)은 문제인 정부의 대표 공약이자 정책이었다. 그러나 막상 문제인 정부의 주요 기구들은 비정규직 착취의 매우 특수하고도 문제적인 방식을 반복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광역 단체장 성폭력 사건은 현재 이른바 ‘진보 정치’를 표방하는 집단의 ‘노동’에 대한 분열적이고 이중적인 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 이른바 ‘진보 정치’ 집단은 젠더와 계급, 성평등과 노동을 서로 상이한 행위 주체와 집단에게 할당하여 분할 통치하는 방식을 지속하고 있다.<sup>2</sup> 성폭력 부정주의는 이런 정치 공학에 의해 강화되고 때로는 동원된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진보 집단의 정파주의와 민주화 세대의 정동은 한국 사회를 극단적인 진영 대립으로 몰고 가는 주요 원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운동권 시절에서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민주화 세대는 ‘헌신’과 ‘열정’, 자부심, 주인의식 등이 아로새겨진 민주화 세대 고유의 정동 체계를 구성했다. 이러한 정동 체계

---

2. 이른바 ‘진보 집단’이 노동과 젠더를 대립적으로 구별하면서 젠더가 아닌 노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문제인 정부 들어서 더욱 강해지고 있다. 광역 단체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폭력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음모론, 진영론을 주장하는 이른바 진보 집단의 태도는 이러한 인식 구조와 관련이 깊다. 이에 대해서는 권명아, 「젠더·어팩트 연구에서 연결성의 문제: 데이터 제국의 도래와 ‘인문’의 미래」(동아대학교 젠더·어팩트 연구소, 『약속과 예측』, 산지니, 2021, 25-169쪽.)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에는 민주주의의 적을 향한 맹렬하고도, 대타적인 우월감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다. 적을 향한 우월감은 정파주의적인 조직 보위의 신념과 쌍을 이룬다. ‘조국 대전’을 징후로 하여 “민주주의의 적”은 “비판 세력”으로 확대되었고, 성폭력을 부정하는 일에서 비판 세력에 대한 조직 보위의 정동적 힘을 강화하고 쇠신하는 연쇄 속에서 발생한다. 민주주의의 적을 향한 우월감과 신념에 찬 조직 사랑의 열정은, 비정규직 성폭력 피해자 여성과 지지 단체, 페미니즘, 청년, 비정규직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집단적 부인의 정치를 추동하는 정동으로 변용되었다. 게다가 이런 식의 정파적인 조직 보위의 정동 체계는 항상 자기 정파에 유리한 결과를 생산하지 않는다. ‘조국 대전’ 당시 서초동 집회는 검찰 지지 세력의 맞불 집회 전략에 맞물려, 오히려 지지 기반을 완전히 상실했던 보수 정당을 희생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sup>3</sup> 이런 점에서 ‘극단적인 진영 대립’을 조직하고 재생산하고 정당화하는 행위 주체는 바로 이러한 민주화 세대의 정파적 정동 체계이다. 이들은 공공기관을 정파적으로 장악하고, 노동 시장에서 높은 임금과 보호 체계, 좋은 승진 조건을 지닌 1차 노동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이 ‘민주화 세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더는 민주적인 세대는 아니다. 게다가 이들 세대의 정파적 정동 체계는 국가 기구와 시민사회 전반에서의 공공성의 부재와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화를 비가시화하고, 이를 ‘정파’의 문제로 환원하고 정당화한다. 민주화 세대는 세계를 ‘적과 우리’로 분할된 적대 진영으로 느낀다. 진심으로 그렇게 느낀다는 점에서 그들은 완벽하게 정파적으로 배타적인 세계를 정동적 현실(affective reality)로 사는 것이다. 헌신과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한 이 정파-친구로 구성된 정동적 현실을 살아가는 민주화 세대에게 이들을 기득권이자 성폭력 가해 집단이라고 ‘공격’하는 이들의 존재는 터무니없이 비현실적이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비정규직, 불안정 고용, 노예노동의 노동 현실과 그 연장에서 일상의 공포로 자리 잡은 성폭력의 위협성은 그야말로 가상의 공포이기 때문이다.

모든 게 적과 내 편으로 나뉘진, 그토록 정파적인 세계야말로 우리가 사는 정동적 현실이다. 그리고 그 정동적 현실에서 공적 합리성, 공공성은 연기처럼 사라

---

3 이를 필자는 ‘맞불 집회의 관계 정동’이라는 차원에서 연구 중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지고 있다. 과거의 그 언젠가 민주-화를 추동하는 정동이었던 정파적 정동은 지금 이곳에서 공적 합리성, 공공성, 시민성, 평등과 같은 민주적인 모든 것을 잠식하는 정동이 되고 있다. 민주-화 세대의 민주-화는 국가 기구에 대한 정파적 지배가 되었고 공공 영역은 모두의 것이 아닌 정파의 몫으로 배타적으로 할당되고 있다. 나아가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시민단체, 정부를 견제할 민간 기구, 인권 단체와 언론, 지식계, 법조계 등이 앞서 논한 국가 기구에 적극적으로 포섭된 결과, 이들 정파적 지배 집단의 권력을 감시할 공적 기구는 거의 남아있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지은입니다』가 비정규직 계약 공무원 김지은이 대선 캠프 자원봉사자가 되었다가, 충남도지사 수행비서가 되었다가,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다가, 사상 초유의 성폭력 부정주의 공격의 사냥감이 되었다가, 직장을 잃었다가, 아무도 모르는 세계로 숨어들었다가, 노동자가 될 권리를 외롭고도 외롭게 외치게 되는 이 모든 이행의 과정은 바로 이러한 정파적 정동이 생성해낸 ‘너무나 일상적인’ 파괴적 변용 과정이다.

## 2 성폭력 부정주의 정동에 대항하는 대안 정동 생성의 쓰기

이 연구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는 『김지은입니다』를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부정주의가 어떻게 집단적으로 조직되는가를 공개적으로 ‘증언’한 정치적 텍스트로 해석하고 자리매김하는 일이다. “안희정 성폭력 고발 554일간의 기록”이라는 부제가 붙어있지만, 이 책은 특정 사건의 기록과 개인의 경험을 담은 것만은 아니다. 성폭력과 권력형 성폭력이 결국 차별적 구조의 문제라는 건 이제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고 논의하고 있지만, 그 구조가 어떤 구조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원론적이다. 모든 살아남은 자의 증언은 정치적이지만, 때로 어떤 증언은 한 세계를 돌이킬 수 없이 뒤엎는다. 여성 운동가 김학순의 증언이 그러했듯이. 김학순의 증언 이후 ‘우리 모두’는 ‘위안부 문제’를 모르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 마찬가지로 『김지은입니다』라는 증언 이후, ‘우리 모두’는 민주화 세대에 대해 더 이상 이

전과 같은 담론, 감정, 표정조차도 지을 수 없다.<sup>4</sup>

『김지은입니다』는 성폭력 피해자에 연대하는 저항의 거점으로, 여러 방식으로 정치적 의미를 획득하였다. 박원순 전 서울 시장 성폭력 피해 고발 사건 이후 진실 규명과 피해자 연대의 의미로 『김지은입니다』를 읽는 저항적 독서 운동이

4 특정 시대 젠더 정치의 역사성을 드러내는 글쓰기와 읽기의 정치성에 대한 연구는 페미니즘 연구에서 꽤 많은 연구사가 축적되어 있다. 문학, 글쓰기, 서사의 역사성과 독서와 읽기의 정치성을 페미니즘 관점에서 재구축한 연구 또한 다양하다. 본고 역시 페미니즘 연구가 쌓아온 그간의 논의를 이어받으면서 역사성과 당대성을 결합하고자 한다. 페미니즘 연구에서 특정 시대의 젠더 정치를 상징하는 글쓰기와 읽기의 관계성을 연구한 최근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관련 연구사는 페미니즘 문학 연구에서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최근 논의로서 1970년대 이후를 다룬 연구에 한정하면 다음과 같다.

이선미는 1970년대 젠더 정치의 역사성을 드러낸 텍스트로 박완서의 『휘청거리는 오후』를 분석하고 기존 연구에서 ‘대중성’으로 평가된 ‘여성 독자’의 존재성과 정치성을 재해석하였다. (이선미, 「‘여성’의 사회적 해석과 1976년의 박완서 소설—《휘청거리는 오후》의 대중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51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571-611쪽.)

김은하는 1980년대 젠더 정치와 박완서 소설의 상관성, 그리고 여성 독자의 읽기의 정치성의 관계를 규명하 바 있다. (김은하, 「여성들의 정치 혁명과 페미니스트 팬플릿으로서 글쓰기: 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해방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7-36쪽.)

최근 연구에서 페미니즘 글쓰기와 읽기의 정치성에 대한 논의는 『82년생 김지영』을 중심으로 상당히 축적되었다. 대표적으로는 허윤, 「광장의 페미니즘과 한국문학의 정치성」(『한국근대문학연구』 제19호, 한국근대문학학회, 2018, 123-151쪽.)을 들 수 있다. 또 『82년생 김지영』 현상을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의 특이성으로 살펴본 정고은, 「2015~2016년 페미니즘 출판/독서 양상과 의미」(『사이판SAI』 제22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7, 167-198쪽.)의 논의도 흥미롭다.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을 고발한 김지은을 공격하는 증오 선동이 이어지자 ‘독자들’은 『김지은입니다』를 읽고 인증하는 저항적 독서 행위를 이어갔다. 그런 점에서 『김지은입니다』는 글쓰기와 읽기에 대한 페미니즘 정치 실천에서 매우 징후적이고 중요한 텍스트이다. 『82년생 김지영』이 ‘소설’ 형식으로 출간되고 영화화도 되면서 ‘문학적’ 측면이나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진 데 비해 『김지은입니다』에 대해서는 페미니즘 이론에 기반을 둔 해석이 그다지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는 『김지은입니다』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증언 서사라는 점과도 관련된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그간 페미니즘 문학 연구에서 축적된 페미니즘 읽기-쓰기의 정치성에 대한 연구와 증언 서사 연구의 방법을 결합하고 확장하여 『김지은입니다』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양하게 일어났다. 이 연구에서는 『김지은입니다』를 여성·비정규직 노동자가 학연과 운동권 네트워크가 결합해서 구축된 정파 조직이 관리자와 상급자로 자리 잡은 정부 조직에서 경험한 노동 착취와 성차별 구조에 대한 기록으로 읽어나가려 한다. 『김지은입니다』는 물론 이런 의도나 목표를 미리 갖고 집필된 텍스트는 아니다. 오히려 사상 초유의 ‘국가 기구 주도의 2차 가해’에 노출된 피해자 김지은이 이 사태를 견디며 연대자들에 의존하면서 가까스로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 일할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애절한 사투의 결과물이라 하겠다. 더 간명하게 말하자면 살기 위해서는 쓰는 수밖에 없었다.<sup>5</sup>

부산성폭력 상담소에서 주관한 「2019년도 2차 피해 사례 분석 및 법정 내 2차 가해 근절을 위한 제언」에는 성폭력 2차 가해 집단과 가해 유형, 피해 사례가 자세하게 분석되어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 2차 피해 가해자는 가해자 변호사(199/50), 학내와 사내 기관 및 주변인(49), 가해자 가족(25) 등이 주를 이룬다.<sup>6</sup> 안희정 사건은 기존의 성폭력 2차 피해 사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초유의 사례로 논의된다.<sup>7</sup> 무엇보다 성폭력을 부정하는 2차 피해 가해자 집단과 동원 네

5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그간 진행된 노동자 글쓰기와 여성 노동자 글쓰기의 어긋남을 살펴본 연구사의 궤적을 이어받고 있다. 또한 여성 노동자 글쓰기를 과거 한 시대를 풍미한 ‘노동자 수기’에 대한 역사적 연구에 한정하지 않고, 지금, 이곳에서의 노동과 젠더 정치의 문제에 개입하는 연구로 이어가고자 한다. 문학사의 맥락에서 노동자 글쓰기와 여성 노동자 글쓰기의 어긋남과 관계성을 살핀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양선, 「70년대 노동현실을 여성의 목소리로 기억/기록하기: 여성문학(사)의 외연 확장과 70년대 여성노동자 수기」, 『여성문학연구』 제3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7-38쪽; 배하은, 「흔들리는 종교적·문학적 유토피아: 1970~1980년대 기독교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살펴본 노동자 장편 수기 연구」, 『상허학보』 제56호, 상허학회, 2019, 401-443쪽; 안지영, 「‘여공’의 대표 (불)가능성과 민주주의의 임계점—1970~198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수기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55호, 상허학회, 2019, 381-420쪽; 오자은, 「‘문학 여공’의 글쓰기와 자기 정체화」,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9호, 한국근대문학학회, 2018, 7-52쪽.

6 부산성폭력상담소 편찬, 「2019년도 2차 피해 사례 분석 및 법정 내 2차 가해 근절을 위한 제언」, 부산성폭력상담소 토론회 자료집, 2019, 14-15쪽.

7 김효영, 「미투운동에서 객관적 진실의 딜레마: 안희정 사건 관련 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8, 1-144쪽. 김효영은 이 논문에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여러 행위 주체의 대응 방식과 담론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먼저 “안희정 측은 성폭력 생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등 ‘전형적인



트위크가 기존의 2차 피해 가해 방식의 규모를 초과한다. 정파 조직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정부, 언론, 학계, 법조계, 온라인 네트워크 등 사상 초유의 조직적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하는 전무후무한 거대한 2차 가해 집단이 출현했다. 또 기존의 정파 조직을 기반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를 지지자 온라인 네트워크, 다양한 정동-기술적 네트워크로 동원하는 완전히 새로운 폭력이 출현했다.

---

피해자'의 정체성을 규정했다. 또한 사회운동단체의 '성적 자기결정권' 담론을 끌어와 재해석함으로써 권력 문제를 배제했다. 이러한 담론의 전유는 성폭력 책임을 생존자에게 돌리는 데 기여했다. 한편, 생존자 측은 안희정 사건을 '위계·권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규정하며 직장에서의 '노동권'과 '성차별' 문제가 상호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시켰다. 가해자 측에서 권력 문제를 비가시화하고 배제했다면, 생존자는 권력 차이를 강조했다. 또한 2차 피해를 호소하며 생존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정치계 전반의 '구조적 성폭력' 해결을 촉구하는 담론을 구성해냈다. 사회운동단체는 구조적 성폭력과 2차 가해, 편파적인 보도를 비판하고 가해자 처벌과 법·제도 마련을 촉구했으며 생존자들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주된 담론으로 구성했다." (위의 글, 122쪽.)

또한 사법기관과 미디어가 '객관성'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주관적이거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투영된 경우가 많았다고 비판한다. 즉 "사법기관은 가해자와 생존자 양측에 발언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고, 이를 객관적·가치중립적인 태도로 관찰하는 '공정한 재판관'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담론 전략을 보였다.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의 원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실체적 진실'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에 '감정'과 '사실'을 대립시키고 '사실'을 강조했다. '감정적'이라 판단되는 진술을 제지하는 방식으로 객관성 규범을 실천하고자 했다. 하지만 담론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법기관에서 객관성 규범을 추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재판관의 신념과 주관이 재판에 개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조를 언급하거나, 전형적인 성폭력 피해자상을 규정하는 등 여성들에 대한 문화적 신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또한 '정조' 개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전환되는 역사적 맥락을 검토하며 사회운동단체의 담론들을 수용하는 듯했지만, '권력'에 대한 담론은 비가시화하는 등 가해자 측의 담론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한편, '죄형법정주의' 담론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객관성'을 추구하면서도 법조항, 법해석 속에 내재된 신념들과 법률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위치에서 비롯된 신념들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법조항과 재판관속에 깃든 신념의 문제는 검토되지 않은 채 '당연시'되었다." 미디어 보도 역시 "각 신문사가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젠더를 중요하게 고려하는지 등에 따라 표상되는 담론들에 차이가 존재했다. 남성 동성사회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지니는 보수신문, 진보신문은 미투 운동으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유사했다." (위의 글, 123쪽.)

안희정 조직에는 기자 출신과 연설 작성자들이 있었다. 글을 쓰고 스토리를 구성하고 언론을 다루는데 능숙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문자를 상황 상황에 편집하여 있지도 않은 일들을 추측하며 그것이 어떤 증거인양 말했다. 조직에 있는 한 살 많은 선배에게 보낸 문자들을 교묘히 혼란스럽게 붙여 안희정과 보낸 문자처럼 글을 써서 내보내기도 했고, 이를 그대로 받아 적은 언론사는 ‘안희정 오빠’라는 기사 제목을 붙여 오보를 냈다. 현재는 기사 제목이 정정되었지만, 이미 확산된 보도는 주위담을 수가 없다. 블로그로, 유튜브로, 트위터 등으로 공유되고 재가공되었다. 미투 직후에는 한 언론사가 공무 중 안희정을 수행하던 영상에 나온 나의 모습을 마지막 피해 당일 CCTV 장면처럼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서 내보냈다. “얼굴을 곳곳이 쳐들고 있는 게 피해자가 맞느냐”는 수많은 악플에 시달렸다. 어떻게 그 장면이 그 언론사에 CCTV 영상처럼 노출되었던 것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그 후로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언론사의 사과나 정정보도는 찾을 수 없고, 그 가짜 빨간 동그라미 CCTV 캡처본은 온라인상에 붉은 상흔처럼 남아 있다.

여론전을 통해 ‘성폭력’의 사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륜’이라는 자극적인 소설들만 돌아다녔다. 안희정의 성폭력 범죄를 증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다. 그런 자료들이 재판에서 증거로 다루어졌고 판결문에 인용되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그러나 재판은 비공개였다. ‘불륜’이 성공하자, 기세에 이어 사법부를 공격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언동들이 2심 재판부를 비난했다. 일부 언론들도 “같은 사안, 다른 판결”이라며 “피해자 말이면 다 믿는 성 인지 감수성”이라고 기사를 썼다. 추가 증거와 추가 증인 진술에 피고인 진술까지, 그 외 모든 점에서 1심과 2심은 엄연히 다른 재판이었다. 그저 공소 제기된 범죄가 같을 뿐이다.

성폭력 범죄에서 가해자 측, 특히 가해자의 가족들, 직장 동료들의 2차 가해는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이루어진다고 들었다. 보통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신상 털기, SNS 털기, 메신저 털기 등은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 가해자가 첫 번째로 하는 작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나의 경

우는 2차 가해, 2차 피해의 아주 대표적·기록적 사례로 꼽힐 정도로 그 심각성이나 피해가 너무 크다고 했다. 전에 없는 2차 가해와 2차 피해, 이것이 강의 주제나 연구 케이스가 되는 것에 대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다만 내가 소망하는 일은 나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sup>8</sup>

조직 보위와 지도자 수호를 위해 국가 기구, 미디어, 대중 선동, 정보 조작(매크로, 가짜 뉴스 등)을 총체적으로 동원하는 이런 방식은 ‘성폭력 2차 가해’의 통상적 방식과도 다르다. 이와 유사한 가장 익숙한 사례는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 주도의 증오 정치 정도를 들 수 있으며, 광주 학살 유족에 대한 국가 주도의 증오 정치도 이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이는 대중 정치 레벨에서 작동하는 소수자 차별 증오 정치의 방식과도 규모나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다. 사상 초유의, 유례가 없는 규모와 강도로 피해자 공격이 진행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런 사상 초유의 ‘성폭력 2차 가해’는 기존의 성폭력 2차 가해와 공통점도 보이지만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른바 ‘조국 사태’와 안희정 사건, 박원순 전 서울 시장 사건, 오거돈 전 부산 시장 사건 등 이른바 진보 정당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이 이어지면서 이 사례를 ‘진보 집단’을 공격하는 적대 진영의 공작 정치로 보고 ‘진보 집단’을 방어해야 한다는 담론 구조가 확고해지고 있다. 진보 집단을 방어해야 한다는 담론 구조가 형성되면서 성폭력 사건을 공작이나 음모, 거짓, 혹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해석의 여지가 다양한 사례로 여기는 담론 구조 역시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이런 담론 구조에서 성폭력 사건은 진보집단에 대한 적대 세력의 공격일 뿐이며 성폭력은 존재하지 않거나 과장되거나 사실관계가 모호하거나 음모론의 산물로 환원된다. 즉 이런 담론 구조에서 성폭력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은 다양한 하위 담론을 통해서 더욱 강화

---

8 “위험의 순간들을 가정해 비교했다. 나는 쉽사리 결정하지 못했다. 안희정의 네트워크는 어디에도 다 닿아 있다고 생각했다. 나만이 나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숨어 사는 게 상책이었다. 그래서 팔찌는 정중히 거절했다. 돌이켜보면 아직까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김지은, 앞의 책, 177-178쪽.)

된다. 이처럼 성폭력을 부인하는 방식은 부정주의(negationism)의 부인의 정치학(politics of denial)의 새로운 형태로 살펴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성폭력 부정주의라는 개념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부정주의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부정을 근간으로 한다. 또 홀로코스트 부정주의(negationism)는 부인의 정치학(politics of denial)을 통해 다양한 지점으로 확산되었다. 한국의 위안부 담론에서 부인주의가 확산되는 과정을 연구한 김명희에 따르면 부인주의는 역사 수정주의와 같은 과거사 문제만이 아니라 기후위기 부인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확산 변용되고 있다.<sup>9</sup> 또 김명희는 “부인론자들은 실로 많은 동기에 의해 움직이지만 이론의 극단적인 고립에 구애 받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고립을 지배적인 정설에 대항하는 지적 용기의 표시이자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간주하면서 종종 자신을 갈릴레오에 비교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부인주의가 한국에서 전면화되고 있다는 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5·18 부인주의가 확대하는 상황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은 —언뜻 개별사건으로 보이는— 인권침해 사건들을 가로지르는 동시대적 부인(contemporary denial)의 구조가 존재하며, 한국판 부인론의 시대가 도

---

9 “여기서 부인주의(denialism)란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이데올로기적 사조 및 담론 체계를 일컫는 것으로 1980년대에 홀로코스트의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을 말하는 ‘홀로코스트 부인(Holocaust denial)에 기원을 갖고 있다(Gleberzon, 1984). 이 사례에서 역사 수정주의와 부인주의는 긴밀히 얽혀있다. 이를테면 제노사이드가 발생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의 재구성과 기억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기에, 역사 수정주의의 메커니즘은 곧 부인(denial)의 기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허시, 2009:63 참고). 그리고 최근 부인주의의 용법은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조를 지칭하면서 공중 보건과학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다. 그 개념 구축에 큰 기여를 한 호프나글(Hoofnagle) 형제에 따르면, 부인주의는 ‘수사적 논증’의 도입을 통해 과학적 합의가 존재하는 문제를 부정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접근법이다. 따라서 맥락과 동기가 무엇이든 부인주의에 직면했을 때, 이를 인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Diethelm & Mckee, 2009:2). 부인의 언술과 화법, 인식론적 기제에 대한 학문적 해명은 인권침해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가해자/지지자의 부인 행동과 그 수사적 장치를 판별함으로써, 담보상태에 있는 논쟁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환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김명희,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부인(denial)의 정치학」, 『한국여성학』 제33호, 한국여성학회, 2017, 240쪽.)

래하고 있는 국면을 감지케 한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정부의 폭력 진압, 군내 성폭력/가혹행위 등의 사례에서 드러난 사회적 부인구조는 폭력의 은폐와 정당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인 주체와 부인 패턴도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다.”<sup>10</sup>

진보 집단 방어를 내세운 성폭력 부정주의는 기존의 부인주의와 구별되는 새로운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뒤에서 살펴볼 것이다. 한편 성폭력 부정주의는 기존의 부인주의의 전형적 특성을 반복하기도 한다. 일련의 사건에서 반복되는 성폭력 부정주의에서 성폭력을 부인하는 수사적 장치는 기존의 부인주의의 수사 장치의 기본 패턴을 따른다.

김명희는 특히 인권사회학자 코언의 연구를 바탕으로 부인의 유형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① 문자적 부인(literal denial)은 가장 단순한 부인 방법으로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전면적 부인을 말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거나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②해석적 부인(interpretive denial)은 사실관계가 밝혀져 부인이 어려워질 경우, 기본 사실은 인정하되 거기에 적용되는 해석을 달리하여 사건을 새로운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해석적 부인에는 잔인한 행위에 중립적 지위를 부여하고 현실을 가리며 무해해 보이도록 하는 ‘완곡어법의 사용’, 공인된 인권 담론에서 도출된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변명하는 ‘법형식주의’, 위계질서 상의 부인·순응·필요성·분할을 이용한 ‘책임의 부인’, ‘예외적 사건의 주장’이 있다. ③함축적 부인(implicatory denial)은 사건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이를 정당화·합리화하는 것으로 어떤 사건에 따라오는 심리적·정치적·도덕적 함의를 부정하거나 축소한다. 정의의 주장, 불가피함, 피해자 존재 부인, 손해의 부인, 맥락화, 유리한 방식으로의 비교가 있다.<sup>11</sup>

부인주의를 유형적으로 분석하는 코언의 틀을 빌어 살펴보자면 한국사회에 확대되고 있는 ‘차별 부인주의’는 문자적 부인의 전형이라 하겠다. 여성이나 소수자를 존중하면 남성이나 주류집단이 차별받는다라는 역차별론<sup>12</sup>, 트랜스젠더 부

10 위의 글, 241쪽.

11 위의 글, 244쪽.

12 파시즘 증오정치의 역사를 살펴보면 역차별론은 역사적으로 파시즘이 체제화되었던 전간기(1차 세계 대전과 2차 세계 대전 사이)에서부터 현재까지 반복되어 등장한다. 역차별론

정론, 젠더 부정론,<sup>13</sup> 여성 차별 부정이나 성차별 자체를 부정하고 음모론 등으로 환원하는 논의가 전형적이다. 성폭력 피해 고소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발한 최근의 사례도 이런 맥락에서 징후적이다. 또 성폭력 고소 사건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을 강조하는 논의 역시 이러한 해석적 부인과 문자적 부인이 결합된 담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성폭력 사건 관련하여 진실 규명보다 ‘애도의 윤리’에 대한 논의가 확산된 과정은 ‘도덕적 함축’(애도의 윤리)이라는 수사 장치가 성폭력을 부정하는 부인의 수사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서 성폭력 고소인을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호소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함축적 부인의 수사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안희정 사건은 이러한 성폭력 부정주의가 구성되는 역사적 원천이기도 하다. 또 『김지은입니다』는 이러한 성폭력 부정주의 형성의 담론 구조, 정동 정치를 추적하고 분석한 텍스트이다. 또한 『김지은입니다』를 통해 우리는 쓰기가 희생자에 속한다는 생존자 서사에 대한, 프리모 레비에서 김학순에 이르는 생존자 서

---

은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담론이라기보다 근대 파시즘 정치의 산물로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속에서 반복되거나 변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치즘은 당대 지배적이었던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전유해서 ‘유태인의 세계 재패설과 아리안 인종의 위기’라는 반유태주의를 구축했다. 나치의 반유태주의는 유태인, 집시 등 당시 인종적인 소수자로 여겨진 집단과 지배적 주류 인종인 아리안 인종 사이의 권력 관계를 전도하여 차별받는 소수집단인 유태인과 주류 인종의 지배 인종인 아리안인이라는 도식을 전도한다. 이런 전도를 통해서 반유태주의가 구성된다. 반유태주의는 당대의 반인종차별주의 논의를 역차별론으로 전도한 것이다. 난민 반대 선동이 위협하는 난민과 위협받는 국민이라는 도식을 통해 난민과 ‘국민’ 사이의 실제적인 권력과 위계, 소수자성을 전도하는 것은 전형적이다. 여성과 남성, 트랜스젠더 여성과 생물학적 여성의 관계에 대해서 역차별을 주장하는 증오 선동 역시 동일한 전도를 반복한다. 이에 대해서는 권명아, 「신냉전 질서의 도래와 혐오발화/증오 정치 비교역사 연구」(『역사문제연구』 제20호, 역사문제연구소, 2016, 11-45쪽.)를 참조.

- 13 젠더 부정론과 이 연장에 있는 트랜스젠더 부정론은 이론적인 젠더차별 철폐주의나 젠더 너머(post gender) 논의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젠더 부정론은 젠더 용어를 사용하는 건 남성성과 여성으로 구별된 양성체제를 부정하면서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동성애 옹호’라고 주장하거나 젠더를 생물학적 여성 정체성을 부정하는 개념으로 환원하는 논의 방식을 지칭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권명아, 「젠더·어펙트 연구에서 연결성의 문제: 데이터 제국의 도래와 ‘인문’의 미래」(앞의 책, 앞의 쪽.)를 참조.

사의 정치성을 확인할 수 있다.<sup>14</sup> 더 나아가 생존자의 쓰기란 부인주의의 정동에 맞선 대안 정동 형성의 정동 정치가 부대끼는 행위성과 정치성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새롭게 논의해나갈 것이다. 성폭력 피해 고발, 즉 미투 고발이 김지은의 첫 번째 말하기였다면 『김지은입니다』는 사상 초유의 2차 가해에 대응하고 견디며 자기를 지키기 위한 두 번째 말하기이다.

살기 위해 선택했던 첫 번째 말하기가 극심한 고통을 주었기에 한참을 주저했다. 그러나 거짓이 횡행하는 상황을 이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글을 쓰기 시작했다.<sup>15</sup>

『김지은입니다』에서 쓰는 일은 의식적 행위를 넘어서 거의 몸의 자동반응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동안 항상 펜을 가지고 다녔다. 누워 있다가 쓰고, 걷다가 쓰고, 누구를 만나다가도 썼다. 휴대폰에, 손에, 광고지에도 썼다. 힘들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것이었다. 나를 지탱해준 것도, 숨 쉬게 해준 것도 ‘글’이었다.<sup>16</sup>

『김지은입니다』에서 글쓰기의 이유는 이유(reason)를 초과한다. 매번 글 쓰는 이유는 있다. 성폭력을 부정하기 위해 김지은을 겨냥한 조직적인 이야기 만들기에 대항하기 위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그들과 똑같아지지 않기 위해, 일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 쓴다.

그들과 똑같아지고 싶지 않다.<sup>17</sup>

---

14 이에 대해서는 권명아, 「사건 이후의 인간학」(인문학협동조합,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 현실문화연구, 2015, 39-76쪽.)을 참조.

15 김지은, 앞의 책, 10쪽.

16 위의 책, 338쪽.

17 위의 책, 179쪽.

2차 가해 글을 다시 접하게 되면서 나는 또다시 내 몸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머리며 허벅지며 배며 팔이며……. 화가 나서 미칠 것 같다. 두려움이 극에 달해 광기에 닿았다. 죽음의 이면을 본 것 같았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머리끝까지 피가 거꾸로 솟구쳤다. 내 안의 내가 밖으로 나왔다. 나는 지금 나를 잃었다. 내가 아닌 것만 같다.

제발 조용히 누군가 다가와 밖으로 나온 나를 와락 안아줬으면 좋겠다. 이 분노가 멈출 수 있게 심장과 심장으로 “그래, 나도 너의 그 맘을 알아. 이해해. 공감해. 동의해”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다시 밖으로 나온 내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sup>18</sup>

자원봉사자에 ‘조직’의 외부자임에도, ‘조직’을 믿고 그 일원이 되고자 헌신적으로 일하던 노동자 김지은이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존재론적인 해체와 파괴의 경험을 하게 되는 추이가 『김지은입니다』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성폭력은 개인 김지은의 존엄이 박탈당하는 과정이자, 조직 보위라는 힘에 동화되어 정동된 상태에서 찢기고 파열되고 이탈하는 신체적 경험이기도 했다. 신체가 세포로 와해되고 분해되는 경험과 고통은 도처에서 발견된다.<sup>19</sup>

세포 단위로 분해되는 몸, 광기에 불타버리는 몸, 몸들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그 서로 다른 몸들이 ‘의지’를 넘어, 이유를 넘어 서로 다투고 부대끼다. 이러한 정동적 신체, 신체의 정동적 경험에 대한 글쓰기는 성폭력과 조직적 이차 가해가 피해자의 존재를 물질적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해체하는 폭력적 과정임을 독자에게 인지시킨다.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3심이 끝나도 언제든지 다시 화형대로 소환되는 도들이포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겁이 났다. 이 굴레를 간절히도 끊어내고 싶었다.

---

18 위의 책, 218-219쪽.

19 “거짓 주장들이 온라인을 잠식했고 나는 인터넷 뉴스창을 통해 그 거짓들과 마주해야 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흩어져버리려는 세포들만 부여잡고 있었다.”(위의 책, 179쪽.) 이런 식으로 신체가 분해되어버리는 것과 같은 경험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걱정해주는 분들에게 괜찮다고 말했지만, 하나도 괜찮지 않았다. 설명하고 싶는데 설명할 수가 없었다. 검찰에서 법원에서 수없이 진술하여 진실성을 인정받았는데도 사람들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그 질문은 내가 죽을 때까지 반복될 것만 같다.

안희정 부인의 글은 잘 짜인 총공격 명령과 같이 느껴졌다. 대선 캠프에 위기가 찾아오면 좌표를 찍고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총공격 시스템. 처음부터 각오했지만 싸우고 싸워도 매번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 불을 끄고 싶다. 온 몸을 감싼 불길의 열기가 너무 고통스럽다.<sup>20</sup>

그러나 한편으로 『김지은입니다』는 자신의 고통과 분노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호소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지 않는다. 글쓰기의 방향은 파괴와 해체의 신체 상태(고통, 절망 등)를 전달하여 공감을 유도하는 데 있지 않고, “그들과 달라지고자 하는” 의지를 넘어서서 무언가에 달라붙는다. 그렇다. 김지은은 불길에 휩싸여,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어찌해볼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의지로도 제어할 수 없는 존재론적 파국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달라붙는다, 생명과 진실의 힘에.

거짓을 잡아먹는 천적은 진실이다. 거짓이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해도 진실이 그 벌레 같은 거짓들을 야금야금 먹어치우리라 믿는다. 느끼고 고통스럽지만 진실이 결국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뿐이다.<sup>21</sup>

지금 하고 있는 이 싸움의 전제 조건은 내가 견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건강해야만 한다. 나는 견뎌내야만 한다. 이기든 지든 싸움의 끝에 나는 있어야 한다. 나는 진실을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진다면 모든 것이 흐지부지 될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 범죄를 암묵적으로 방치했던 사람들, 그 범죄를 수면 아래로 내리기 위해 동

---

20 위의 책, 181-182쪽.

21 위의 책, 179쪽.

분서주하는 사람들 틈에서 꼭 증명해내고 싶다. 죽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닌, 살아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를 만들고 싶다.<sup>22</sup>

『김지은입니다』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글쓰기는 김복동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숨이 집필한 증언 소설 『송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거야』<sup>23</sup>에서도 발견된다. 조금 더 먼 콘텍스트로는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를 들 수 있다. 작가의 의도나, 사상, 사유보다, 신체의 경험이 앞서고, 더 오래 남는 글쓰기의 역사적 지층들 속에서 『김지은입니다』를 읽어야 할 이유다. 이를 죽음을 무릅쓰는 글쓰기라 할 수 있다.<sup>24</sup> 죽음을 무릅쓰는 글쓰기란 저자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위협과 공포에도 불구하고 남겨놓은 글쓰기라는 의미만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라고 부르는 모든 요인이 사라진 후에도, 사라졌음에도 작동하는 글쓰기라고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 사라 아메드는 그림 형제의 동화를 빌어서 논한 바 있다. 동화에서 마을의 엄마와 어른들의 훈육에 복종하지 않아 마을의 골치덩어리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아이, 마을 사람들은 이를 신의 벌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장례 지낸다. 무덤을 잘 손질하고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다음 날 마을 사람 하나가 그 아이의 무덤에서 손이 빠죽 뻗어나와있는 것을 발견한다. 마을 사람들은 무덤 뒷정리가 소홀했나 싶어 다시 무덤을 손보고 아이의 손을 잘 수습한 후 마을로 돌아온다. 다음 날도, 다음 날도, 엄마가 직접 무덤에 가서 아이의 손을 수습하고 마지막 인사를 한 후에도 아이의 손은 무덤을 비집고 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오기를 멈추지 않았다.

원래 이 동화는 훈육에 복종하지 않는 아이를 신이 벌한다는 도덕률을 새기

---

22 위의 책, 254쪽.

23 김숨, 『송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거야』, 현대문학, 2018, 7-210쪽.

24 성폭력 생존자의 글쓰기는 증언이나 유서로 남겨지지만 이조차 부정되었다. 증언도 유서도 글쓰기도 반복해서 부정되지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쓰기’는 멈추지 않는다. ‘쓰기’란 폭력의 경험을 부정하는 부인의 힘에 맞선 생존자들의 필사의 투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권명아, 「여성 살해 위에 세워진 문학/비평과 문화산업」(『문학과 사회』 제121호, 문학과지성사, 2018, 140-167쪽.)을 참조.

는 교육의 목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사라 아메드는 이 동화를 ‘인간의 죽음’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는 집요하게 뺨어나가는 의지와 이유(reason)를 넘어서 끈질긴(persistence) 신체의 힘으로 재해석한다.<sup>25</sup> 『김지은입니다』의 글쓰기는 사라 아메드의 개념을 따르면 의지와 이유를 넘어서, 끈질긴 신체적 작용의 힘의 작용이라 하겠다. 무덤을 뚫고 솟아오르는 손은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마을 공동체의 암묵의 질서를 요동치게 한다. 무덤을 뚫고 솟아오르는 손의 행위를 ‘인간의 언어’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인간들에게는 공포, 불안, 죄의식, 경악, 숭고 등의 감정을 유발한다. 무덤을 뚫고 솟아오르는 손과 그 손을 다시 무덤 안으로 집어넣으려는 마을 사람들의 헛된 노력이 반복되면서 마을 사람들은 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찾고자 하지만 그 역시 역부족일 뿐이다. 또 죽은 후에도 무덤 밖으로 뺨쳐나오는 손은 ‘고집 센 아이’의 손이지만 더는 오로지 그녀의 신체에 속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인간에서 비롯되었지만 더는 인간에게만 속하지 않는 힘에 정동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부여했다. 우리는 마을 공동체의 인간적 감정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힘은 그 감정으로는 환원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힘이야말로 마을 공동체의 인간적 감정이 죽어버린 힘이며, 살해되었으나 죽지 않는 힘이며, 죽지 않고 돌아와서 인간의 마을의 자연스런 감정 체계를 파열시키고 뒤흔드는 힘이다. 이 힘은 그런 의미에서 이 글에서 논하고자 하는 기존의 지배적 감정 체계와 지배적인 정동 정치를 파열하고 뒤흔드는 대안 정동이라고 할 수 있다.

사라 아메드는 이러한 끈질긴(persistence) 신체의 힘에 대한 정동 이론적 규명을 통해서 주체의 의식적이고 인식적 행위로 개념화된 저항(resistance)과는 다른 형태의 권력 비판 이론을 그려나간다.<sup>26</sup> 그림 형제의 「고집 센 아이」(Willful Child)에서 무덤을 뚫고 집요하게 솟아오르는 아이의 손은 아이의 의지나 의도를 넘어서 마을 공동체의 도덕과 기율 전부에 의문을 던진다. 『김지은입니다』에서 의지와 이유를 넘어서 끈질긴 글쓰기의 힘은 모든 걸 걸고 일에 매달려왔던 노

25 Sara Ahmed, *Willful subject*, North Carolina: Duke University Press, 2014, pp.1-204.

26 Marta Zarzycka & Domitilla Olivieri, “Affective encounters: tools of interruption for activist media practices”, *Feminist Media Studies*, 17:4, Routledge, 2017, pp.527-534.

동자 김지은을 비노동자로 만든 이 공동체의 기율과 구조에 질문을 던진다.

나는 더 이상 노동자가 아니다. 일도 하지 못하고 수입도 없다. 생계를 늘 걱정한다. 고소 이후 일 년이 넘게 재판에만 임했다. 노동자로서 성실히 살아왔던 내 인생 전체가 한 노동자의 삶으로서 인정받기 이전에 피해자다움과 배치되는 행동으로 평가받았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라며 대학원에 간 것은 “범죄를 거절했어야 마땅한 판단력 있는 고학력 여성”이라는 가해자의 논리에 사용되었다. 이전 일을 그만두고 선거 캠프에 들어간 것은 팬심에 의한 것이 되었고, 근무 시간 제한 없이 일에 매진했던 것은 피고인을 좋아해서였다고 매도되었다.

만약 당시 정상적인 노동자로서의 삶을 보장해달라고 더 강하게 요구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일을 외면하고 현실에서 도망치면 피해자다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이 절실했던 내가 당장 관두고 다른 일을 찾았다면 피해자다운가? (중략)

정당한 판결문을 손에 쥐었지만 여전히 내 삶은 쏟아지는 2차 가해 속에, 기울어지고 빼딱한 시선 속에, 일하지 못하는 처참한 비(非) 노동자의 그것이다.

직장 내 성폭력과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는 고발 후 그 살길이 막막하다.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비슷하다. 재취업 노동을 위한 도움과 관심이 진심으로 필요하다.<sup>27</sup>

『김지은입니다』는 노동자에서 비노동자가 된 경과를 집요하게 묻는다. 죽은 아이의 손이, 원래 그 손의 주인이던 아이의 몸에서도 떨어져 나와 “왜 나를 죽였나”라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끈질기게 묻듯이 말이다.<sup>28</sup> 『김지은입니다』는 오로지 노동에만 온전히 매달렸던 노동자 김지은이 왜 비노동자가 되었는지, “왜 나

27 김지은, 앞의 책, 294-295쪽.

28 정동 이론에서 정동은 무엇에 달라붙는 경향이 있고(sticky) 달라붙은 그 무엇을 변용하는데 그 달라붙음과 변용 과정이 마치 전근대에서 상상한 신들림과도 유사하여 ‘귀신들림(Haunted)’ 같은 작용을 한다고도 논의된다.

는 비노동자가 되었느냐”라고 이 공동체를 향해 끈질기게 묻고 있다.<sup>29</sup> 이런 맥락에서 『김지은입니다』는 운동권의 정파주의 정동에 기반한 성폭력 부정주의 정동의 폭력적 지배에 맞서, 하나의 신체가 세포로 파괴적으로 변용되는 과정을 경유하면서 성폭력 부정주의의 정동에 대항하는 쓰기의 정치의 산물이다. 『김지은입니다』에서 쓰기는 성폭력 부정주의에 맞서는 대안 정동 생성의 장치라고 하겠다.

### 3 이중노동시장 구조와 공적 조직의 정파적 점유

#### : 여성 노동자의 중층적 외부자성과 성폭력 무책임주의의 구조적 원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구조와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지 않는(못하게 만드는) 구조가 동일하고, 그 구조는 조직보위에 의해 규정된다. 이 연구의 또 다른 목표는 『김지은입니다』를 ‘개인의 피해 경험’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폭력의 원천에 대한 근원적 질문과 탐구를 담고 있는 텍스트로 해석하고 자리매김하는 일이다.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가 그랬듯이 말이다. 『이것이 인간인가』는 마치 정동 능력이 소멸된 것 같은 ‘탈정동적’ 양태로 수용소를 하나의 사례가 아닌 폭력의 특정한 역사적 원천이자 구조로 해석하고 탐구했다. 『김지은입니다』는 ‘운동권 출신’ 대선 후보의 정치 캠프, 캠프의 주축인 정파 조직(안희정 사람들)과 그 연장으로 구축된 광역 단체 조직의 내부를 탐구한다. 계약직 공무원인 김지은은 대선 캠프와 충남도 조직 모두에서 ‘외부자’였고, 고용, 노동, 성폭력, 성폭력

---

29 성폭력을 노동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논의는 반성폭력 운동과 논의에서도 오래 지속되었다.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노동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여성 혹은 피해자의 노동권을 침해한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적절한 피해 구제책이 없음으로 인해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직장 내 성희롱은 실질적인 고용상의 성차별을 지속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최윤정, 『산업재해로서의 직장 내 성희롱』, 푸른사상, 2019, 29-30쪽.) 이 글의 논의 역시 성폭력이 산업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며 노동 착취의 젠더 차별적 구조화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나아가 개별 사례에서 드러나는 조직 구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이 글의 주요한 문제의식이다.

고발, 고발에 대한 성폭력 부정주의와 이에 대한 대응, 해고, 세상과의 단절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이 구조의 산물이다.

『김지은입니다』에서 우리가 읽고 나누고, 주목할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다. 지방자치 단체장 성폭력 사건은 시작도, 끝도 조직 보위 문제다. 조직 보위의 이념, 전개, 작동 방식, 동원 기제와 행위 주체는 이른바 ‘운동권 시절’의 방식에서 출발하여 쌓고 또 쌓인 노하우가 총동원된다. 조직 보위는 애초에는 투쟁적인 자기 보호의 방편이었으며 그런 점에서 전략이자, 이념이며, 충성, 사랑, 헌신, 적에 대한 공격성과 증오 등의 정동 체계를 구성한다. 전략과 이념과 정동들이 결합하여 이른바 한국형 운동권 정파의 특정한 정동 체계가 형성되었다. 이 정동 체계는 이른바 ‘민주화 세대’의 지배적인 정동 구조가 되었으며, ‘적’과 ‘조직 보위’라는 구도가 작동할 때마다 반복해서 힘을 발휘한다.

『김지은입니다』에는 성폭력 고발 이후 이른바 ‘안희정 조직’에서 김지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출한 탄원서와 연대 서한이 실려 있다. 조직 모두가 ‘조직을 배신하면 죽음이다’라는 조직 보위의 구호를 목숨 걸고 지킬 때 김지은을 지지하고 도왔던 사람들 중 많은 이가 경선 캠프 자원봉사자였던 청년들이라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sup>30</sup> 대선 경선 캠프가 ‘자원봉사’라는 형식이어서 무보수 봉사 활동이 중심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캠프의 네트워크와 업무 방식을 충남도청 업무로도 이어와서 충남도청 업무에서도 ‘자원봉사’, 무보수 활동이 이어졌다. 김지은의 수행 비서 업무는 전형적이다. 수행 비서 업무 외에도 이런 식의 무보수 업무나 불안정 고용 형태의 노동력 동원 방식은 다양하다. 일례로 김지은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또 다른 동료는 충남도청 “미디어센터 공보관실 소속 콘텐츠팀

---

30 “선거 캠프라는 조직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운영되는 조직이긴 하나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주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인 채용 과정은 없으나 추천인이 있거나,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입증해야만 캠프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김지은이 사생팬이라 캠프에 들어갔다는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소문일 뿐입니다.”(위의 책, 195-196쪽.) 위 인용구는 동료들이 보내온 탄원서 중에서 선거 캠프에서 함께 한 사람의 탄원서이다. “김지은의 미투 이후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졌고, 2018년 3월 8일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이 모임은 “경선캠프에서 함께 했던 친구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되었다.” (김지은, 앞의 책, 184쪽.)

산하 인터넷 방송국 조연출 직책을 맡고 있었다. 아르바이트 같은 개념. 인터넷 방송 소속이었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인터넷 방송국과는 전혀 상관없이 도지사의 연설 활동, 강연, 축하 등을 전부 영상으로 기록하는 업무를 했다.”<sup>31</sup>

캠프 시절의 자원봉사자 청년들과 충남도청의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동료가 주로 김지은을 지지했다는 점은 우연은 아니다. 이는 철저하게 이중화된 조직 구도에서 외부자들이 주로 피해자 편에 섰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지은입니다』를 토대로 재구성해보면, 안희정 정파는 ‘운동권 출신’ 연결 조직(고려대학교, 학생 운동권, 운동권 집단 등), 이른바 ‘범민주’ 계열 정치 조직과 대선 준비 조직(캠프), 범민주 계열 행위 주체들(검찰, 경찰, 언론사,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연결 조직들), 지지자 조직(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위주체들)이 결합된 거대 조직이다. 학생 운동 조직에서 시작된 정파조직은 규모 면에서 국가 기구 전체를 장악할 정도로 확대되었다. 이 정파 조직의 정동 체계는 행위 주체들의 이질성에 따라 변용되면서도 지배적 정동 양태는 조직보위 정동에 의해 구축되고 탈구축되기를 반복한다.

또한 위의 연결 조직에 포함되지 않는 캠프 실행 행위 주체들(사무국, 행정국, 임시직), 불안정 피고용인<sup>32</sup>, ‘안희정 사람’이지만 임시적으로 결속된 자, ‘동

---

31 위의 책, 204쪽.

32 지방 정부에서 이처럼 ‘자원봉사’에 가까운 ‘무보수 노동’으로 이뤄지는 업무가 관행으로 치부된다. 예를 들어 부산시의 경우 부산영화제 진행과정에서 이러한 무보수 노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어나자 비판자를 질타하며 ‘열정 노동’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이 문제는 부산시장이 진보 정권 인사로 당선된 이후라 더욱 큰 실망을 주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박근혜 정부의 탄압과 예산 삭감으로 위기에 처했던 터라 부산시민들은 새로운 부산시장 체제에서 부산국제영화제가 큰 변화와 도약을 이룰 것이라 기대했다.

‘2018년 부산국제영화제 프로젝트선 오퍼레이터를 맡은 A씨(21세)는 잦은 밤샘 근무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초과 근무 수당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사태가 문제가 되자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부산국제영화제는 자유로운 직장문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외 근무수당을 깔같이 따져 지급하면 우리의 자유로운 직장문화가 무너진다.”고 공식 답변했다.’ 홍민지 기자, 『열정페이 요구한 부산국제영화제, 체불임금만 1억원』, 『프레시안』, 2018년 10월 19일.

‘조사결과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는 올해 (2018년)영화제에서 스태프 149명의 야간근로 수당 등 시간외 근로수당 1억2400여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국제영화제

료'나 조직운영을 좌우하는 행위주체가 아니고 단순한 실무 주체이기에 무조건 복종과 손쉬운 해고를 통해 임시적 결속 방식을 반복한다.<sup>33</sup>

성폭력은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권력형 성폭력이나 직장 내 성폭력에서는 이렇게 조직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배제된 외부자 집단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대선 경선 캠프나 충남도청의 안희정 조직은 정규직이고 조직 내부에 밀착된 '내부자'와 조직의 일을 하고 있지만 대체로 비정규직이고 임시직이고 조직에 대해 발언권이 전혀 없는 '외부자'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사회 도처에 이런 현상이 만연하다보니 광역 단체와 같은 국가 기구와 공공 조

---

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16일 단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이 미지급된 점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또 올해 미지급된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재원확보 방안을 논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세진 기자, 「부산국제영화제, ‘단기계약직 시간 외 근로수당 미지급’ 사과」, 『뉴스1』, 2018년 11월 16일.

‘청년유니온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제 스태프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청년유니온과 이용득 의원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온라인 설문, 전화 및 대면인터뷰를 통해 영화제 스태프 34명으로부터 받은 제보와 올해 전국에서 열린 영화제 스태프의 근로계약서 292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영화제 스태프들 대다수는 청년(평균연령 28.1세)이었으며 평균 경력기간 2년 동안 4.4개월 단위로 3개의 영화제를 전전했다. 또한 잦은 실업상태에 놓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제 고용기간이 짧아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제보자 34명이 경력기간 영화제에서 맺은 근로계약 97건 가운데 87.6%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7.5개월, 풀타임기준)에 미달했으며 경력기간 내내 7.5개월 미만의 근로계약만 맺은 제보자가 16명이나 됐다.’ 홍민지 기자, 「열정페이 요구한 부산국제영화제, 체불임금만 1억원」, 『프레시안』, 2018년 10월 19일.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영화제 스태프 대부분이 열악한 고용 형태에 놓여있고, 이에 따라 불안정 노동과 임금 착취, ‘열정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은 홍보 전문가였던 김지은의 노동이력과 비교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성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 정부의 행정 조직과 인력 관리, 그리고 관리 감독 문제라는 차원에서 지방 정부의 노동 착취와 젠더화된 노동력 착취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 33 “선거 기간 중에도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그 시간이 어떻게 되었더라도 꼭 마무리하던 사람으로, 충남도청에서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무시당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고 혼자서 끄공 닦던 김지은씨입니다.” (김지은, 앞의 책, 199쪽. 「동료들이 보내 온 탄원서」 중에서.)



직에도 이러한 이중구조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애초에 계약직 공무원에서 ‘선배’의 권유로 경선 캠프 자원봉사자가 되었다가, 충남도지사 수행비서로 자리를 옮긴 김지은의 여정은 이중노동시장 구조에서 외부자인 여성 노동력의 이동 경로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sup>34</sup>으로 희망을 품은 ‘봉사’는 노예적 착취의 연속일 뿐이었다.<sup>35</sup>

한국과 일본의 이중 노동 시장 구조와 여성의 외부자화를 연구한 「여성은 왜 외부자로 남아 있는가」에 따르면 이중 노동 시장 구조는 한국과 일본에서 유독 더 심각하게 젠더 차별적으로 고착되었다.<sup>36</sup> “이중 노동 시장 이론은 내부 노동 시장과 외부 노동 시장, 1차 노동 시장과 2차 노동 시장, 혹은 중심 부문과 주변 부문으로 이중 구조의 노동 시장을 설명한다. 1차 노동 시장에서 더 높은 고용 보호와 임금, 더 나은 근로 조건과 승진 및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반면, 2차 노동 시장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 조건과 승진과 교육 기회의 부재, 사적인 노사관계 등의 특징을 보인다. 또한 이중 노동 시장 구조에서 두 노동 시장 사이의 이동성이 낮다. 이중 노동 시장 구조에서 내부자의 종사상 지위는 정규직이며, 외부자의 종사상 지위는 대개 비정규직이다.”<sup>37</sup>

『김지은입니다』는 노동자에서 비노동자로 해체되는 과정을 집요하게 물고

---

34 위의 책, 76쪽.

35 “처음에 피해자가 피의자의 대선 캠프에 출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일단 피해자는 당시 중앙부처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나를 안정적인 위치에 있었고,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선 캠프는 거의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아닌 타 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정적이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대선 캠프에서 일하는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중략) 피고인이 대선(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고 캠프가 해산된 뒤 피해자를 본인이 근무하는 곳으로 스카우트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피해자를 말려야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어울리던 모임의 다른 직원에게도 털어 놓은 적이 있을 정도로 고민을 했습니다.” (김지은, 앞의 책, 200쪽. 「동료들이 보내온 탄원서」 중에서.)

36 이승윤 외, 「여성은 왜 외부자로 남아 있는가?」, 『한국사회정책』 제23호, 한국사회정책학회, 2016, 201-237쪽.

37 위의 글, 204쪽.

늘어지면서 이중 노동 시장의 외부자 집단의 노동 조건에 대해 자세한 관찰을 남기고 있다. 이중 노동 시장 구조에서 벌어지는 일상적 착취를 “생계형 정신노동이 일상인 직장”<sup>38</sup>이라고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나와 일했던 사람 대부분은 안희정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오래 전부터 모여 있던 이들이다. 그리고 내가 보낸 것이라며 언론에 문자를 공개한 사람들은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안희정의 최측근들이었다. 내가 수행비서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감시하듯 나의 말투, 표정, 태도, 감정 표현까지 하나 하나 지적했던 사람들이었다. 안희정 조직 내에는 계파 같은 게 있었다. 조직 내 참모진 서열 순위라거나, 그 최측근 참모진 밑에서 서로 줄서기, 최측근 경쟁, 평판 경쟁, 충성 경쟁 같은 것이 존재했다. 어찌되었건 나는 거기에 낄 수조차 없었다. 나는 조직 내 위력에서 가장 밑에 있었다. 누구에게도 밋보여선 안 됐고 어떤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다. 납작 엎드려 기어야 하는 위력의 법칙이 조직 내 힘의 역학에 따라 내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항시 생존 본능의 스위치를 켜두고 지냈다.<sup>39</sup>

‘안희정 조직’은 정규직과 조직 내부자가 상급자가 되어 비정규직인 외부자를 불안정 고용 형태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폐기처분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런 구조에서 외부자들은 언제든지 손쉽게 대체된다. 다른 말로 하면 손쉬운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다. 노동 착취와 노예화가 이중 노동 시장 구조로 정당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성 착취는 바로 이런 노동 착취 구조에서 비롯된다. 동시에 노동 착취가 조직 보위 차원에서 정당화되듯이 성 착취에 대한 무책임주의 역시 조직 보위의 맥락에서 정당화된다.

더 큰 문제는 조직 보위의 정파주의로 운영되는 조직이 광역 단체와 같은 정부 기구와 공공기관이 될 때 이를 관리 감독할 책임 주체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광역 단체가 관리 감독의 사각 지대에 놓이는 기이한 조직 구조는 여러 점에서 논

---

38 김지은, 앞의 책, 175쪽.

39 위의 책, 175쪽.

의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른바 민주화 세대 정파 조직이 광역 단체장이 되면서 발생하는 독특한 문제의 하나로 기존 공무원 조직과의 적대적 공존 관계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 문제에 주목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부산시, 충남도청, 서울시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 속에서 동일한 무책임주의 패턴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른바 광역 단체장이 선발한 별정직 공무원(오거돈 캠프, 안희정 캠프, 6층 사람들과 같이)과 기존 광역 단체 행정전문직 집단(고위직 공무원에서 행정 전문가 등) 사이의 적대적 공존과 책임 회피가 반복되고, 이 문제를 보수 정당 세력과의 적대와 갈등의 문제로 역시 정파주의 패러다임으로 대응하면서 무책임주의가 다시 정당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특히 기존 공무원 조직과의 갈등은 이른바 노무현 정부의 실패에 대한 집단적 트라우마이기도 하다.

『김지은입니다』에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안희정 포털 제작과 관련한 에피소드는 광역 단체가 정파주의적으로 점유되고, 기존 공무원 조직은 적대적 공존 방식으로 일관하면서 무책임주의가 일상화되는 문제를 치밀하게 기록하고 있다.

안희정의 잦은 외부 강연과 해외 출장이 언론과 의회에 의해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안희정은 하던 대로 밀고 나갔다. 처음부터 1월엔 스위스, 2월엔 호주, 3월엔 중국, 4월엔 일본 등 한 달에 한번 해외 출장 계획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일부 사람들은 퇴임 이후 안희정의 해외 유학 계획을 짜고 있었다. 현직 도지사보다는 미래 국가 지도자에 걸맞은 계획이었다. 안희정과 조직에게는 대통령 만들기로서의 계획이 있었다.

안희정이 해외에 가 있는 동안에는 조직 구성원들도 휴식을 취했다. 업무를 지시할 사람이 없으니 모두 해외 휴가를 다녀왔다. 나는 갈 수 없었다. 안희정이 퇴임 이후 사용할 일명 ‘안희정 포털’을 만들어야 했다. 8년 동안 도지사로서 행한 정책과 인명 기록들을 정리하고, 향후 대선 레이스에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일이었다.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도와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에 도청에 들어간 지 채 6개월 밖에 안 되는 내가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어 일을 추진해야 했다. 일부 참

모는 재판 중에 ‘이 작업을 위해 전문가를 소개시켜줬고, 자신들도 열심히 도와줬다’고 증언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다. 예정된 회의에도 대부분이 다른 이유를 대며 참석하지 않았다.

일반 공무원들도 이 작업을 탐탁지 않게 보았다. 합법적인 일 처리처럼 보이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도청 예산을 이용해 개인 포털을 만드는 일이었다. 일의 이면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있었다. 대통령 만들기라는 미명하에 일을 끝내기를 재촉받았지만 제대로 일할 수 없었다. 도와주기로 했던 일반 공무원은 사무실에 와서 내게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고는, 이어 커피를 마시며 ‘이 일은 불법이고, 자신은 일반 공무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한 뒤 돌아갔다.

조직 내 선배들에게 일 처리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말했지만, 대답은 여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큰 일 앞에 작은 일은 희생해야 한다.” 어떻게든 끝마치라는 것이다. 내가 본 도청 안 대부분의 일이 그랬다. 도청 예산을 활용해 안희정 지지자들을 위한 숙소비를 제공하기도 했고, 개인적인 지인들에게 선물을 돌리는 일은 흔했다.

2심에서 안희정이 법정 구속된 이후에도 일부 언론은 여전히 안희정의 출마를 말했다. 대권 주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무죄를 받으면 다시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이다. 그들의 기준으로 나뉜 큰일 앞에 여전히 작은 일은 무시되고 있었다. 그 기준에서 무엇이 큰 일이고 무엇이 작은 일인지 나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 적어도 내게 있어 큰일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다.<sup>40</sup>

정파적인 조직 보위의 이념과 정동을 따라 내부와 외부가 위계화 되고, 조직의 차별적 위계화가 노동 조건 자체에 대한 이중 구조로 중층적으로 규정된 구조, 더 나아가 기존 공무원 조직과의 적대적 공존 전략에 따른 무책임주의의 일상화. 이런 상황에서 조직의 외부자들에 대한 노동 착취와 성착취는 구조적으로 정당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광역 단체와 같은 공공 기관, 정부 조직에 대해서도

---

40 위의 책, 119-121쪽.

이런 구조에서는 견제와 감시를 맡을 행위 주체와 제도가 사라지게 된다. 공공 기관이 정파 조직의 수단이나 선거용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김지은입니다』는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지방 정부와 지방 정부 행정 조직이 지역 분권이나 지방 자치라는 이른바 ‘진보 진영의 오래된 민주주의 과제’를 실현하기보다, 이른바 ‘범민주 계열’의 집권과 선거 승리를 위한 조직 보위의 수단과 도구로 전락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견제와 감시를 수행할 행위 주체인 언론, 지식 사회, 시민 단체, 법조계 등을 정파 조직의 내부로 포섭해온 결과 공공 기관, 지방 정부, 국가 조직, 정당에서 ‘공공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광역 단체장 성폭력 사건에서 문제로 인지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공공성의 위기다.

또한 이렇게 시민사회, 미디어, 지식계, 온라인 네트워크와 국가 조직 전체로 확대된 정파 연결 조직이 성폭력 부정주의의 실행 행위 주체이기도 하다. 이는 기존의 성폭력 2차 피해의 주요 가해 집단과 유사한 부분도 있으나, 기존의 성폭력 2차 가해 행위자 대표 집단의 범위를 훨씬 초과한다. 시민사회, 정부, 언론, 학계, 법조계, 온라인 네트워크 등 사상 초유의 조직적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하는 전무후무한 거대한 2차 가해 집단이 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기존의 성폭력 2차 피해의 범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이런 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안희정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집단화된 전무후무한 성폭력 2차 가해의 출현을 성폭력 부정주의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특히 정파주의와 조직보위가 오래된 행위 주체와 새로운 기술-정동적 네트워크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폭력 장치를 생산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 4 ‘민주화 이후’의 사상적 대안으로서 반차별 정치

성폭력 부정주의는 민주화 세대라는 특정 세대 집단과 ‘진보 정치’라고 하는 특정 이념 집단이 자신들의 지배적 이념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의 증오정치의 부인 전략을 전유하면서 구성되었다. 586 세대는 한국 사회 지배 집단, 주류 집단, 기득권 집단이지만 성폭력 부정주의 담론에서 이들은 위협과 공격에 취약한 위

태로운 집단이 된다. 성폭력 부정주의는 ‘진보’가 공격당하고, 586 세대가 위협 받는다는 식으로 역차별론을 전유하고, 이를 통해서 실제적인 소수자성의 권력적 위계를 전도한다. 이 과정에서 세대적 갈등은 더욱 강화되고, 진영론 역시 강화된다. 이런 적대의 강화는 성폭력 부정주의가 자라나는 온상이며 성폭력 부정주의가 지속할 수 있는 생태계이다. 세대, 젠더, 인종, 지역을 교차하며 구성되는 실제적인 소수자성의 자리와 권력적 위계는 세대와 젠더를 고립하고 분리하는 분리주의 전략 속에서 사라져버린다. 세대론이 현실의 소수자성의 복합적인 문제를 손쉽게 처리해버리는 건 전형적이다. 그런 점에서 성폭력 부정주의는 특정 세대의 산물이지만, 세대 문제로 환원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특정 세대가 생산한 성폭력 부정주의에 맞서기 위해서는 세대 적대와 분리가 아닌, 소수자성의 차별의 복합성을 놓치지 않는, 서로 다른 손과 또 다른 손이 맞잡을 수 있는 끈질긴 살들의 부대낌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성폭력 부정주의가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증오 정치로 대두했다는 점은 어떤 점에서는 매우 씩씩한 일이다. 그러나 차별 선동과 증오 정치가 부상하는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새로운 타겟 집단이 부상하는 건 그 타겟 집단이 새로운 희생양이 된다는 의미와 함께, 그 타겟 집단이 새로운 정치 주체로 부상하는 흐름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 증오 정치는 새로 부상하는 집단을 ‘희생양’과 공격 대상으로 발견한다면, 대안 정치는 새로 부상하는 집단을 정치적 주체로 대면하고 상상하는 자리에서 발생한다. 성폭력 부정주의에 대한 고찰은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에 새롭게 등장하는 오래된 증오 정치를 분석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증오 정치가 부정하고자 하는 대안 정치와 대안 주체 형성의 발생학을 살피는 일이다. 성폭력 부정주의 연구는 단지 민주화 세대의 진보 정치의 종말만을 씩씩하게 곱씹는 게 아니다. 그런 환멸에 바치기에는 우리의 열정과 연구의 가치는 너무 아깝다. 오히려 성폭력 부정주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민주화 이후의 대안 정치 이념이자 주체로서 반차별 정치의 이념과 주체가 형성되는 생생한 대안 정치의 발생학에 도달한다. 또 지루하고 고루한 오래된 정동 정치가 무력화되면서 기존의 언어로 환원될 수 없는 대안 정동이 생성하고 생성되는 대안 정동 정치의 현장이 바로 성폭력 부정주의 연구의 현장이라 하겠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김지은, 『김지은입니다: 안희정 성폭력 554일간의 기록』, 봄알람, 2020, 1-384쪽.

### 단행본

권명아, 「사건 이후의 인간학」, 인문학협동조합, 『팽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 현실문화연구, 2015, 39-76쪽.

\_\_\_\_\_, 「젠더·어펙트 연구에서 연결성의 문제: 데이터 제국의 도래와 ‘인문’의 미래」, 동아대학교 젠더·어펙트 연구소, 『약속과 예측』, 산지니, 2021, 125-169쪽.

김숨, 『송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거야』, 현대문학, 2018, 7-210쪽.

부산성폭력상담소, 「2019년도 2차 피해 사례 분석 및 법정 내 2차 가해 근절을 위한 제언」, 부산성폭력상담소 토론회 자료집, 2019, 14-15쪽.

최윤정, 『산업재해로서의 직장 내 성희롱』, 푸른사상, 2019, 29-30쪽.

Ahmed, Sara, *Willful subject*, North Carolina: Duke University Press, 2014, pp.1-204.

### 논문

권명아, 「신냉전 질서의 도래와 혐오발화/증오 정치 비교역사 연구」, 『역사문제 연구』 제20호, 역사문제연구소, 2016, 11-45쪽.

\_\_\_\_\_, 「여성 살해 위에 세워진 문학/비평과 문화산업」, 『문학과 사회』 제121호, 문학과지성사, 2018, 140-167쪽.

김명희,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부인(denial)의 정치학」, 『한국여성학』 제33호, 한국여성학회, 2017, 240쪽.

김양선, 「70년대 노동현실을 여성의 목소리로 기억/기록하기: 여성문학(사)의 외연 확장과 70년대 여성노동자 수기」, 『여성문학연구』 제3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7-38쪽.

- 김은하, 「여성들의 정치 혁명과 페미니스트 팸플릿으로서 글쓰기: 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해방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7-36쪽.
- 김효영, 「미투운동에서 객관적 진실의 딜레마: 안희정 사건 관련 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8, 1-144쪽.
- 배하은, 「흔들리는 종교적·문학적 유토피아: 1970~1980년대 기독교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살펴 본 노동자 장편 수기 연구」, 『상허학보』 제56호, 상허학회, 2019, 401-443쪽.
- 안지영, 「‘여공’의 대표 (불)가능성과 민주주의의 임계점—1970~198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수기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55호, 상허학회, 2019, 381-420쪽.
- 오자은, 「‘문학 여공’의 글쓰기와 자기 정체화」,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9호, 한국근대문학학회, 2018, 7-52쪽.
- 이선미, 「‘여성’의 사회적 해석과 1976년의 박완서 소설—《휘청거리는 오후》의 대중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51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571-611쪽.
- 이승윤 외, 「여성은 왜 외부자로 남아 있는가?」, 『한국사회정책』 제23호, 한국사회정책학회, 23(2), 2016, 201-237쪽.
- 정고은, 「2015~2016년 페미니즘 출판/독서 양상과 의미」, 『사이넵SAI』 제22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7, 167-198쪽.
- 허윤, 「광장의 페미니즘과 한국문학의 정치성」,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9호, 한국근대문학학회, 2018, 123-151쪽.
- Zarzycka, Marta and Domitilla Olivieri, “Affective encounters: tools of interruption for activist media practices”, *Feminist Media Studies*, Routledge, 2017, p.527-534.

## Abstract



Writing counter affect persistently, against the sexual violence negationism

Kwon Myoungah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I’m Kim Ji-eun” as a political text that publicly testified how sexual violence negationism is organized in Korean society. After the testimony of “I’m Kim Ji-eun,” “all of us” can no longer make the same discourse, feelings, and expressions about ‘democratic mouvenent generations’ as before.

The study of sexual violence negationism is not just a bitter reminder of the end of progressive politics in the ‘democratic mouvenent generations’. Rather, through the study of sexual violence negationism, we reach the birth of vivid alternative politics in which the ideology and subject of anti-discrimination politics are formed as an alternative political ideology and subject after democratization. In addition, the site of alternative politics, which cannot be returned to the existing language, is the site of the study of sexual violence negationism.

Key words: negationism, denialism, sexual violence negationism, “I’m Kim Ji-eun”, anti-discrimination politics, writing counter affect, dominant affect system of ‘democratic mouvenent generations’

본 논문은 2021년 3월 26일에 접수되어 2021년 3월 2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1년 4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